

# 고구려의 남방 진출과 기마전

- 특히 강화만하구 진출을 중심으로 -

이 홍 두\*

1. 머리말
2. 고구려의 예성강하구 진출과 기마전
3. 고구려의 관미성 함락과 기마전
4. 고구려의 한강하구 진출과 기마전
5. 맺음말

## 1. 머리말

고구려의 영역 확장과 관련한 전쟁사 연구는 남방 진출보다는 북방사와 관련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 관한 고구려의 기마전 연구도 중국이나 북방 유목민족과의 전투가 중심을 이루었으며, 지금도 그러한 경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강화만하구로 진출하는 고구려의 남방 진출은 백제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었는데, 이때 전쟁의 승패는

---

\* 홍익대학교 교수

기병의 전투력에 좌우되었다. 그동안 양국의 기마전은 대부분 고구려가 승리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사실은 근초고왕 때까지는 백제의 경기병체제가 우세하였고, 고구려는 광개토왕이 중장기병을 육성한 이후부터 기병이 우세하였다. 고구려의 강화만하구 진출에서 가장 격전지로 꼽히는 곳은 예성강 하구와 관미성 및 한강하구 지역인데, 이곳의 전투는 모두 기병의 전투력에 따라 승패가 갈렸다. 그러나 사료가 부족한 관계로 당시 고구려와 백제의 실제 기마전을 복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평지 기마전과 공성 기마전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sup>1)</sup> 참고하여 논지를 전개할 수밖에 없다.

평지 기마전에서는 중장기병(철기병)을 선봉에 배치하여 적진으로 돌격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중장기병은 말과 병사가 모두 쇠로 만든 패쪽갑옷(찰갑)을 착용하고 등자를 사용함으로써 방호력이 우수했다. 그리고 경기병은 중장기병이 공격할 때 생기는 무너진 적의 보병을 공격하고, 위협에 처한 지점의 부대를 신속하게 지원하였다. 일반적으로 경기병은 기동력을 이용해 적군의 측면이나 후방을 공격하였지만, 주력 무기인 활의 파괴력이 떨어졌으므로 보병의 근접지원이 필요했다. 한편 공성 기마전에서 기병의 역할은 성을 방어할 때와 공격할 때가 서로 다르다. 성을 방어할 때는 개문 출격하여 기마전을 수행할 뿐이지만, 성을 공격할 때는 성 안으로 화살을 쏘고, 보병이 성벽을 오를 때 지원사격을 하며, 성 안의 기병이 개문 출격할 때 기마전을 수행하였다. 특히 등자를 사용하면서부터는 투창을 사용해 원거리 적도 살상하였다.

관미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선학의 여러 학설이 있다.<sup>2)</sup> 그동안 ‘사면이

1) 아더웨일 저·이춘근 역, 『전쟁의 기원』, 인간사랑, 1990; 버나드 로 몽고메리 저·송영조 역, 『전쟁의 역사』, 책세상, 1995; T.N. 두푸이 저·박재하 역, 『무기체계와 전쟁』, 병학사, 1987; 강건작, 『무기와 전술』, 커뮤니케이션, 2005; 이상욱 역해, 『신완역 육도삼략(六韜三略)』, 명문당, 2000.

2)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교동도설), 1976; 武田幸男,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1989, (개성 부근설); 윤일녕, 「관미성 위치고」, 『북악 사론』 제2호, 국민대 국사학과, 1990(과주 교하면 오두산성설); 박시형, 『광개토왕릉비』, 1966, 220쪽(예성강 남안설).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료 때문에 강화도 교동도가 유력하게 거론되었지만, 수군을 동원했다는 기사가 없는 것을 보면, 반드시 교동도라고 확신할 수가 없다. 그리고 광개토왕이 관미성을 거점삼아 백제의 58성 700성을 공취하기에는 관미성의 위치가 너무 서쪽에 치우쳐 있다고 하겠다. 한편 파주 오두산성설은 ‘백제 북쪽 변경 요새’라는 측면에서 보면 타당하지만, 광개토왕 즉위 초에 백제가 지배하고 있는 예성강하구와 한강하구를 가로질러 파주까지 진출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미성의 위치는 당시 고구려와 백제의 접경지역에 있었다고 볼 때 예성강하구의 어느 지점일 것이다. 그리고 광개토왕의 군사력 성장과 영토 확장에 대해서는 중장기병의 도입과 발달이 영토 확장을 실현했다는 견해<sup>3)</sup>, 국제관계가 고구려 영역 확장에 유리했다는 견해<sup>4)</sup>, 진사왕과 아신왕 사이의 왕위계승의 혼란을 틈타 이루어졌다는 견해<sup>5)</sup> 등이 있다. 필자는 중장기병의 도입이 영토 확장의 계기가 되었다는 견해를 따랐다.

본 연구는 고구려가 남방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백제와 강화만하구 지역에서 전개했던 주요 전투를 기마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가 고구려는 북방 진출에서만 기마전을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여기서는 남방 진출에서 백제와의 기마전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고구려가 예성강하구로 진출하는 문제를 다룰 것이다. 특히 고국원왕이 예성강하구로 진출하기 위해 백제 근초고왕과 세 차례 교전하여 모두 패했는데, 패배의 원인은 경기병이 백제보다 열세했기 때문이었다는 가정을 전제로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고구려가 관미성을 함락할

3) 정동민, 「고구려 重裝騎兵의 모습과 도입시점에 대한 소고」, 『전통문화연구』 제6호, 용인대, 2007.

서영교,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고구려의 전술과 무기」, 『고구려연구』 제17호, 고구려연구회, 2004.

이인철, 「4~5세기 고구려의 남진경영과 중장기병」, 『군사』 제33호, 국방군사연구소, 1996.

여호규, 「고구려 중기의 무기체계와 병종구성」, 『한국군사사연구』 제2호, 국방군사연구소, 1999.

4) 공석구, 『고구려 영역확장사 연구』, 서경문화사, 1998.

5) 武田幸男,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1989.

수 있었던 것은 광개토왕이 육성한 중장기병의 역할이 컸다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물론 관미성은 사면이 가파르고 바다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중장기병이 전투력을 발휘하기에는 불리한 지형이다. 그러나 갑옷으로 무장한 중장기병은 자체의 방호력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부교나 원거리 무기인 쇠뇌의 지원을 받아 성 밑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가설에서 출발하였다. 제4장에서는 고구려 장수왕이 한성을 함락한 이후, 예성강 이남에서 한강 이북 지역에 대한 영토 확장의 문제를 기마전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 2. 고구려의 예성강하구 진출과 기마전

강화만하구에 대한 지배권은 백제가 선점하였다.<sup>6)</sup> 그런데 고구려 미천왕이 낙랑군(313)과 대방군(314)<sup>7)</sup>을 각각 축출하면서 양국은 예성강을 경계로 전쟁에 돌입했다. 369년 고구려 고국원왕이 2만의 보·기병을 이끌고 백제의 치양(배천)<sup>8)</sup>을 공격하였다. 만약 백제가 치양을 상실한다면, 대방군 남부지역의 교두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sup>9)</sup> 이에 근초고왕은 태자 근구수를 보내 적극 반격에 나섰다.

여기서는 고구려가 예성강하구로 진출하기 위해 백제와 전개하는 기마전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다음의 사료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

6) 1~2세기까지 강화만하구는 힘의 공백기였다. 그런데 246년 백제의 고이왕이 대방군의 속현인 진한 8국의 영토를 차지하고, 286년 책계왕이 대방군의 구원요청을 받아들여 고구려군을 격파하면서 이 지역의 지배권을 선점하였다. 권오영, 「초기백제의 성장과정에 관한 일고찰」, 『한국사론』 제15호, 서울대 국사학과, 1986; 임영진, 「한성시대 백제의 건국과 한강유역 백제 고분」, 『백제논총』 제4호, 1994.

7) 황해도 방면에 두어졌던 중국의 군현이다. 『晉書』 권14, 지리지 상 平州條에 의하면 대방군은 帶方, 列口, 南新, 長岑, 堤奚, 含資, 海冥 등을 領縣으로 하였고, 戶는 4,900호였다.

8) 雉壤은 황해도 배천으로 비정한다. 현재 치양성의 유적이 남아 있는데, 개성에서 예성강을 건너 황해도 남부 지역으로 들어가는 통로에 있다. 사회과학원, 『고고민속』, 1966, 24~27쪽.

9) 문안식, 「백제 한성기 북계와 동계의 변천」, 『백제 연구』 제44호, 충남대 백제연구소, 2006, 13~14쪽.

- ① 근초고왕 24년 가을 9월에 고구려왕 사유가 보·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와치양에 주둔하고 군사를 나누어 민가를 약탈했다. 왕이 태자에게 군사를 주어 곧 치양에 이르러 기습하여 격파하고, 5천여 명을 사로잡고 그 전리품을 장군과 사병들에게 나누어주었다.<sup>10)</sup>
- ② 근구수왕은 근초고왕의 아들이다. 이에 앞서 고구려 국강왕 사유가 친히 와서 침범하므로 근초고왕이 태자를 보내어 막게 하자, 반걸양에 진을 쳤다. 고구려 사람 사기는 본래 백제 사람이었다. 어쩌다 국마의 발굽을 상하게 되어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고구려로 도망갔다. 이때 돌아와서 태자에게 말하기를, “저쪽 군사가 비록 많으나 모두 수를 채운 가짜일 뿐이요, 그 중에 붉은 기를 단 군사가 가장 날래니 만약 그것만 격파하면, 그 나머지는 그대로 두어도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하자 태자는 그 말에 따라 진격하여 크게 깨뜨리고, 도망가는 자를 추격하여 수곡성 서북에 당도하였다. 그런데, 장군 막고해가 간하기를, “일찍이 도가의 말에 만족할 줄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 소득이 많은데 무엇 하려고 더 많은 것을 구하십니까?” 하니 태자는 옳게 여겨 추격을 중지하고 돌을 쌓아서 표를 만들고, 그 위에 올라 좌우를 돌아보며, “오늘 이후에 누가 다시 이곳에 올 것인가?” 라고 하였다.<sup>11)</sup>
- ③ 근초고왕 26년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오므로 왕은 듣고 군사를 패강가에 잠복시켜 그들의 도착을 기다려 불시에 공격하니 고구려 군사가 패하였다.<sup>12)</sup>
- ④ 근초고왕 26년 겨울 왕이 태자와 함께 정병 3만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10) 『三國史記』 권24, 백제본기 2, 근초고왕 24년(369) “二十四年 秋九月 高句麗王斯由帥步騎二萬 來屯雉壤 分兵侵奪民戶 王遣太子以兵徑至雉壤 急擊破之 獲五千餘級 其虜獲分賜將士”

11) 『三國史記』 권24 백제본기 2, 근구수왕 1년(375) “近仇首王 近肖古王之子 先是高 句麗國岡王斯由親來侵 近肖古王遣太子拒之 至半乞壤將戰 高句麗人紀本百濟人 誤傷國馬蹄懼罪奔於彼 至是還來 告太子曰 彼師雖多 皆備數疑兵而已 其驍勇唯赤旗 若先破之 其餘不攻自潰 太子從之 進擊大敗之 追奔逐北 至於水谷城之西北 將軍 莫古解諫曰 嘗聞道家之言 知足不辱 知止不殆 今所得多矣 何必求多 太子善之止焉 乃積石爲表 登其上 顧左右曰 今日之後 疇克再至於此乎”

12) 『三國史記』 권24, 백제본기 2, 근초고왕 “二十六年 高句麗舉兵來 王聞之 伏兵於泚 河上 俟其至急擊之 高句麗兵敗北”

침략하여 평양성을 공격하니 고구려왕 사유가 힘껏 싸워 막아내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 이에 왕이 군사를 끌고 돌아왔다.<sup>13)</sup>

위 사료 ①은 백제와 고구려가 치양에서 대방군의 영유권을 놓고 기마전을 전개했다는 내용이고, 사료 ②는 사료 ①과 동일한 치양 전투에 대한 것인데, 근구수왕 때 사관이 더욱 상세히 기록하였다. 사료 ③은 근초고왕이 패하에서 고구려군을 기병의 기습공격으로 방어했다는 내용이고, 사료 ④는 근초고왕이 군사 3만을 이끌고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이 전사했다는 내용이다.

고국원왕이 2만의 보·기병으로 백제 땅 치양에 진을 치자, 백제의 태자 근구수가 경기병을 이끌고 예성강을 건너 반걸양(배천)<sup>14)</sup>에 진을 쳤다. 사료 ①에서 '기습하여 격파했다'는 것은 경기병의 기동력을 이용하여 기마전에서 승리했음을 뜻한다. 사료 ②의 내용이 사료 ①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데, 고구려군은 2만의 보·기병을 붉은 깃발의 정규군과 그 밖의 비정규군으로 구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고구려군의 전투대형을 유추해 보면, 선봉에는 정규군 기병을, 기병의 뒤에는 비정규군의 보병대를 배치했을 것이다. 한편 후방에도 비정규군의 보병대를 배치했을 것이다.

백제의 침자 사기를 통해 고구려의 군사 편성을 확인한 근구수 태자는 자신이 직접 지휘한 기병대를 이끌고 적의 중앙으로 돌진하여 붉은 깃발의 고구려 정규군 기병대를 돌파하는 전략을 세웠다.

태자는 좌우측에 배치한 기병 돌격대를 출동시켜 고구려 비정규군 보병을 측면에서 공격했을 것이다. 고구려 비정규군 보병 대열이 순식간에 무너지자, 정규군 기병대가 고립되면서 대열이 무너져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태자의 기병대가 고구려 정규군 붉은 깃발의 기병대와 정면으로 맞섰다.

13) 『三國史記』 권24, 백제본기 2, 근초고왕 “二十六年冬 王與太子帥精兵三萬 侵高句麗 攻平壤城 高句麗王斯由力戰拒之 中流矢死 王引軍退移都漢山”

14) 현재의 황해도 배천군으로 비정하고 있다.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377쪽.

기병과 기병이 직접 교전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태자의 기병대가 고구려 기병을 향해 창을 던져 기선을 제압하자, 고구려 기병대의 중앙 대열이 무너졌고, 이어서 좌우측의 대열도 무너졌을 것이다. 그때 태자의 기병대가 우회하여 고구려군의 후방을 공격했을 것이다. 전후로 포위된 고구려 보병은 도망할 곳이 없었다. 처절한 학살이 행해졌으며, 포로가 5천여 명이었다.

백제군이 고구려군을 격파한 것은 매복에 유리한 반결양을 선점한 것과 고구려 정규군의 붉은 깃발 기병대를 신속히 접근하여 격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적진의 견고한 방진을 부수고 진로를 개척하려면 중장기병이 필요하다. 그러나 태자가 경기병만으로 고구려 선봉 기병대를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은 고구려 보병의 대부분 오합지졸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고구려 정예 보병이 긴 창으로 무장하고 견고한 방진을 쳤다면, 백제군의 승리는 장담할 수 없었다.

태자는 후퇴하는 고구려군을 예성강 상류 신계의 수곡성 서북까지 추격하여 그곳의 영토를 확보하였다. 이후 수곡성은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하거나 방어할 때 중요한 요충지였다. 따라서 백제는 황해도 중간에 위치한 멀악산맥 이남 지역을 확보한 셈인데, 한편으로 이러한 사실은 백제가 아직 대방의 중심 지역을 차지하지 못하고 남부 지역의 석권에 그쳤음을 말해준다. 백제와 고구려가 대군을 동원하여 대방 지역에서 벌인 역사상 첫 번째 대결은 백제의 완승으로 끝났다.<sup>15)</sup>

치양 전투에서 패배한 고국원왕은 2년 후 371년(근초고왕 26) 군대를 이끌고 다시 백제를 침공하였다. 백제의 근초고왕은 패하(평산군 저탄)<sup>16)</sup>의

15) 이도학, 「백제 집권국가형성과정 연구」,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154쪽.

16) 백제와 대방군의 경계였던 패하는 예성강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대 지리지에는 나루 명칭이 곧 강의 호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패하는 예성강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특정 나루를 지칭하며, 평산군의 저탄일 가능성이 높다. 평산을 지나는 예성강의 한 부분을 저탄 혹은 패강으로 불렀으며(『고려사』 권58, 지3, 평주), 『황해도읍지』 권1, 평산의 산천조에도 온조왕 13년에 사방의 강역을 정할 때 북쪽은 패하를 경계로 하였는데, 그 패하가 저탄임을 밝히고 있다.

강가에 진을 치고 전투태세를 완비하였다. 고구려 군대가 패하의 도하를 완료했지만, 전투태세가 정비되지 않았다. 그때 강둑과 강가의 풀숲에 매복한 백제의 경기병이 고구려군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였다. 백제의 기병대는 아직 방진을 치고 방어태세를 갖추지 못한 고구려군의 허점을 이용하여 기습공격을 감행하였다. 근접전에서 기병이 창을 휘두르며 적의 대형을 돌파하면, 기병의 뒤를 따르는 밀집보병대가 고구려군을 격퇴하였다.

근초고왕은 고구려와 두 차례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여 북쪽 경계를 예성강 유역으로 크게 확장하였다. 동북으로는 신계에 이르고, 서북으로는 웅진반도와 해주에 이르렀다. 따라서 백제는 웅진-해주-평산-남천-신계에 이르는 멸악산맥 이남지역을 경계로 삼았다.

371년 겨울에 근초고왕은 태자와 함께 군사 3만을 이끌고 자비령을 넘어<sup>17)</sup>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평양성 전투는 고국원왕이 전사한 것으로 보면 백제가 승리한 듯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손실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소수림왕은 내정을 정비한 재위 5년(375) 가을에 백제 수곡성을 함락시켜 백제 공격의 유리한 국면을 마련했다. 다음의 사료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근초고왕 30년 가을 7월, 고구려가 와서 북변의 수곡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니, 왕이 장수를 보내 방어하였으나 이기지 못했다. 왕이 또 대병력을 출동시켜 보복하려고 하다가, 흉년이 들어 결단을 못하였다.<sup>18)</sup>

위 사료는 375년 고구려 소수림왕이 백제 수곡성<sup>19)</sup>을 함락함으로써, 이후 백제와의 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내용이다.

고구려가 수곡성을 함락한 데에는 철기병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일반적

17) 김기섭, 『백제와 근초고왕』, 학연문화사, 2000, 156~158쪽.

18) 『三國史記』 권24, 백제본기 2, 근초고왕 30년(375) 7월, “三十年秋七月 高句麗來攻北鄙水谷城陷之 王遣將拒之 不克 王又將大舉兵報之 以年荒不果”

19) 수곡성은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하고 방어하는데 유리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런데 수곡성이 함락됨으로써 백제의 북쪽 경계선이 예성강 중하류로 밀려났다.

으로 철기병은 적의 방어선을 충격력으로 돌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고구려 철기병은 보병이 안전하게 성문에 이르도록 선봉에서 돌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성문에 진출한 보병이 철기병과 함께 성문을 부수면, 투창과 쇠뇌로 무장한 보병이 그 뒤를 따라 성문을 돌파했다. 한편으로 철기병은 보병이 성벽을 타고 넘을 수 있도록 근접 거리에서 지원 사격을 감행하였다. 백제군도 투석기를 쏘면서 성을 방어했지만, 성 밑의 고구려 궁수와 투창병 및 원거리 무기인 쇠뇌를 막지 못해 패배했을 것이다.

한편 백제는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십 명의 기병대를 성 밖으로 출격시켜 기마전을 수행했지만, 고구려 중장기병의 파괴력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후 근초고왕은 보병과 기병으로 구성된 대규모 연합부대를 파견하여 수곡성을 탈환하려고 하였지만, 흉년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375년 이후의 전황은 고구려 소수림왕과 고국양왕은 백제의 북쪽 변경을 공격하였고, 백제의 근수구왕과 진사왕은 적극 방어하였다. 결과적으로 백제는 대방지역에서 밀려나 예성강 중하류와 마식령산맥을 경계로 대치하게 되었다.<sup>20)</sup> 다음의 사료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

- ① 진사왕 2년 봄, 국내의 15세 이상 되는 자를 징발하여 관방을 설치하되 靑木嶺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팔곤성까지 막고, 서쪽으로 바다에까지 이르렀다.<sup>21)</sup>
- ② 진사왕 6년 9월, 왕은 달솔 진가모를 시켜 고구려를 쳐 도곤성을 빼앗고, 2백 명을 사로잡았으니 왕은 진가모에게 병관좌평을 제수하였다.<sup>22)</sup>

사료 ①은 백제가 예성강하구인 청목령(개성)에서 예성강 상류인 수곡성의 서북쪽까지 관방을 설치했다는 내용이고, 사료 ②는 백제가 도곤성<sup>23)</sup>을

20) 이도학, 앞의 글, 1991.

21) 『三國史記』 권25, 백제본기 3, 진사왕 2년(386), “二年春 發國內人年十五歲已上 設關防 自靑木嶺 北距八坤城 西至於海”

22) 『三國史記』 권25, 백제본기 3, 진사왕 6년(390) 9월, “九月 王命達率眞嘉謨伐高句麗 拔都坤城 虜得二百人王拜嘉謨爲兵官佐平”

23) 도곤성은 개성에서 금성을 거쳐 신계로 진출하는 요충지로 추정하는 연구가 있다. 이도학,

회복하여 신계 방향으로 진출하는 거점을 확보했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소강상태에 머물던 양국은 10년이 지난 진사왕 때부터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했다. 진사왕은 386년에 15세 이상의 백성을 동원하여 청목령에서 북으로는 도곤성, 서쪽으로 바다에 이르는 관방을 쌓았다. 예성강하구의 바닷가에서 시작하여 마식령산맥의 줄기를 따라 관방을 설치한 것은 백제의 실제 북방 경계선이 이 지역이었음을 뜻한다. 고국양왕은 8월에 군대를 파견하여 백제를 공격하였다.<sup>24)</sup> 그러나 백제가 강력하게 대응하자, 고구려는 더 이상 내려올 수 없었다.

진사왕은 390년 9월에 달솔 진가모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쳐서 도곤성을 함락시키고 200명을 사로잡는 전과를 올렸다. 백제가 도곤성을 함락시키는 데는 몇 가지 전술이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먼저 도곤성과 연결된 도로를 봉쇄하여 성을 고립시켰다. 그리고 투석기인 포차와 충차를 동원하여 성문을 공격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과 철제 갑옷으로 무장한 중장기병이 파괴된 성문으로 들어가 도곤성 방어군을 살상했을 것이다. 특히 중장기병은 등자를 사용한 결과 기마자세가 안정됨으로써 창이나 기병도를 마음껏 휘둘렀다. 한편 도곤성의 고구려 기병은 개문 출격하여 성 밖에서 기마전을 전개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갑주로 무장한 백제 중장기병의 원거리 무기인 쇠뇌의 공격을 막지 못했을 것이다.

백제는 도곤성을 수복함으로써 수곡성의 신계로 진출하는 요충지를 확보하였고, 금천에서 침입하는 고구려군의 압박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앞의 논문, 1991, 217~218쪽). 한편 현재 개성 북방에 있는 대흥산성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윤일녕, 「관미성위치고」, 『북악사론』 제2호, 국민대 국사학과, 1990, 136쪽.

24) 『三國史記』 권17, 고구려본기 6, 고국양왕 3년.

### 3. 고구려의 관미성 함락과 기마전

고구려 광개토왕은 391년 7월에 4만의 군사로 백제 석현성 등 10여개 성<sup>25)</sup>을 함락하였고, 10월에는 관미성을 함락시켰으며, 393년 7월에는 정예 기병 5천으로 수곡성을 함락시켰다. 394년 8월에는 7천의 기병으로 패수에서 백제군을 무찌르고 8천 명을 포로로 잡았다. 광개토왕이 백제를 상대로 거둔 이러한 일련의 성과는 광개토왕비문 영락 6년(396)조에 58성 700촌을 공취했다는 기록으로 남아있다.

여기서는 광개토왕이 강화만하구로 진출하기 위해 백제와 교전한 일련의 기마전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다음의 사료를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다.

- ① 광개토왕 1년(391)겨울 10월, 백제의 관미성을 쳐 함락시켰다. 그 성의 4면이 다 가파르고 바닷물에 둘러싸였으므로 왕은 군사를 일곱 길로 나누어 공격해 20일 만에 함락시켰다.<sup>26)</sup>
- ② 아신왕 2년(393) 가을 8월, 왕이 진무에게 이르기를, “관미성은 우리 북변의 요새지인데 지금 고구려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것이 나를 애통케 한다. 그대는 아무쪼록 마음을 써서 부끄러움을 씻게 하여 달라”하고, 마침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남변을 칠 계획을 하였다. 진무는 몸소 병사들에 앞서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석현성 등 다섯 성을 회복할 생각으로 먼저 관미성을 포위하자, 고구려 사람들이 성문을 닫고 굳게 지키니 진무는 군량이 떨어져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다.<sup>27)</sup>

위 사료 ①은 광개토왕이 백제의 북방 요해처인 관미성을 20일 만에 함락시켰다는 내용이고, 사료 ②는 아신왕이 관미성을 수복하기 위해 1만의

25) 『三國史記』 권18, 고구려본기 6. 광개토왕 1년(391) 가을 7월

26) 『三國史記』 권18, 고구려본기 6. 광개토왕 1년(391) 동 10월 “冬十月 攻陷百濟關彌城 其城四面峭 海水環繞 王分軍七道 攻擊二十日乃拔”

27) 『三國史記』 권25, 백제본기 3. 아신왕 2년(393) “秋八月 王謂武曰 關彌城者我北鄙之襟要也 今爲高句麗所有 此寡人之所痛惜 而卿之所宜用心而雪恥也 遂謀將兵 一萬伐高句麗南鄙 武身先士卒以冒矢石 復石峴等五城 進圍關彌城 高句麗人嬰城固守 武以糧道不繼 引而歸”

군대로 성을 공격했지만, 군량이 떨어져 철군했다는 내용이다.

관미성의 위치를 교동도로 본다면, 요해처로서 성의 위치가 너무 서쪽에 치우쳤다고 생각한다. 또한 당시 양국이 침예하게 대립한 곳이 청목령(개성 북쪽 12km)에서 팔곤성(마식령산맥의 동북쪽 끝)까지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관미성은 예성하구의 어느 지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관미성을 어떻게 함락했을까? 그것은 성의 함락과 기마전의 관계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부교를 통해 중장기병을 성으로 진입시켰을 것이고, 다음으로 장거리 무기인 쇠뇌를 사용해 공격했을 것이다.

광개토왕은 관미성을 함락하기 위해 군대를 7개 부대로 나누었다. 이것은 관미성 방어군의 전투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전술인데, 각 부대는 중장기병을 주력군으로 삼고, 특수보병을 보조부대로 편성했을 것이다. 갑옷으로 무장하여 방호력을 갖춘 중장기병이 부교로 성벽 근처에 접근하여 활을 쏘고, 700m를 날아가는<sup>28)</sup> 투사무기 쇠뇌부대<sup>29)</sup>가 관미성 방어군을 원거리에서 공격하기를 20일간 지속하여 성을 함락시켰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성 밖의 주변도로를 차단하여 성을 고립시키는 전략도 관미성을 함락시키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한편 관미성은 요새형 산성으로 방어군이 수성전을 전개하기에 유리했지만, 방어군을 7개 부대로 나누어 대응함으로써 전투력이 분산되는 문제에 직면했다. 성의 방어군은 성 밑으로 돌을 굴리고 불화살을 쏘았지만, 고구려 중장기병의 근접 공격과 일시에 발사하는 다량의 쇠뇌 공격을 끊임없이 받게 되자, 방어군은 장기전을 견디지 못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듯하다.

백제의 아신왕은 빼앗긴 실지 회복을 적극 추진하였다. 아신왕은 강화만 하구에 위치한 고구려 남쪽 변경의 다섯 개 성을 회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1만의 군대를 이끌고 관미성을 포위

28) 강건작, 『무기와 전술』, 커뮤니케이션, 2005, 85쪽.

29) 쇠뇌(弩)는 기계장치를 활용한 원사무기의 일종이다. 대체로 쇠뇌는 활보다 사정거리가 길었고, 파괴력이 강했다. 이정빈, 「6~7세기 고구려의 쇠뇌 운용과 군사적 변화」 『군사』 제77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1쪽.

하였다. 만약 백제가 관미성을 수복하여 교두보로 삼을 경우, 예성강하구 지역을 쉽게 장악할 수 있었다.<sup>30)</sup>

관미성을 포위한 아신왕의 부대는 활과 석포를 피해 성문과 성벽을 넘으려고 시도했지만, 관미성을 탈환하지 못했다.<sup>31)</sup> 고구려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성전으로 방어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군량 확보에 실패한 아신왕의 군대는 도망자가 속출함으로써 성의 포위를 풀고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아신왕은 고구려가 총력을 기울여 지키고 있던 관미성과 석현성 등의 요충지 공격을 자제하고 마식령산맥을 넘어 신계의 수곡성으로 진출하였다. 공격 방향을 예성강 중·상류에 위치한 수곡성 일대로 전환한 셈이다.

백제군은 신계에서 남으로 내려와 금천 부근에 주둔한 고구려군을 공격하든지, 또는 수안과 상원을 거쳐 평양에 이르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다. 백제군이 신계의 수곡성을 장악하여 예성강 상류 지역을 확보한다면, 그 하류 쪽의 남안에 주둔한 고구려군을 남북의 두 방향에서 협격할 수 있었다.<sup>32)</sup>

그러나 백제 아신왕의 전략은 전략전술이 능한 광개토왕을 만나 무너졌다. 다음의 사료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

- ① 광개토왕 3년(393) 가을 7월, 백제가 침범하자 왕은 정병 5천 명을 맞아 싸워 무너뜨렸다. 적군은 밤에 달아났다.<sup>33)</sup>
- ② 아신왕 4년(394) 가을 8월, 왕은 좌장 진무 등을 시켜 고구려를 치니, 고구려왕 담덕이 친히 군사 7천 명을 거느리고 패수 가에 진을 치고 막아 싸우니 우리 군사가 크게 패하여 죽은 자가 8천 명이었다.<sup>34)</sup>

30) 이도학, 앞의 글, 1991, 181쪽.

31) 관미성은 사면이 가파르고 바닷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공성장비인 투석기와 화공전술에 쓰이는 충차, 원거리 무기인 쇠뇌 등을 성벽 가까이에 접근시킬 수가 없었다. 다만 부교를 가설하여 성벽까지 접근하면, 이들 공성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미성의 방어군이 쏘는 화살과 투석기의 집중 공격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32) 이도학, 앞의 글, 1991, 183쪽.

33) 『三國史記』 권18, 고구려본기 6, 광개토왕 3년(393) 추7월 “三年秋七月 百濟來侵 王率精騎五千 逆擊敗之 餘寇夜走”

34) 『三國史記』 권25, 백제본기 3, 아신왕 4년(395) 추 8월 “秋八月 王命左將眞武等伐高句麗

- ③ 아신왕 4년 겨울 11월, 왕은 패수 전투의 패배를 보복하기 위해 친히 군사 7천 명을 이끌고 한 수를 건너 청목령 아래에 진을 쳤는데, 마침 큰 눈이 내려 병졸들이 얼어 죽은 자가 많으므로 한 산성에 와서 군사들을 위로하였다.<sup>35)</sup>

위 사료 ①은 백제가 수곡성을 수복하기 위해 침공했지만, 광개토왕이 5천의 기병을 이끌고, 백제군을 격파했다는 내용이고, 사료 ②는 백제가 침공하자, 광개토왕이 7천의 기병을 이끌고 패수에서 백제군을 격퇴했는데, 사망자가 8천이었다. 사료 ③은 아신왕이 패수에서의 패배를 보복하기 위해 군사 7천을 이끌고 청목령(개성 송악산)에 진을 쳤으나, 큰 눈이 내려 회군했다는 내용이다.

393(동왕 2) 7월 백제의 아신왕은 5천명의 보·기병을 이끌고 수곡성 밖에 진을 쳤다. 선봉에는 고구려 철기병의 공격에 대응하여 방패병과 창병으로 방진을 쳤다. 백제군의 배치를 확인한 광개토왕은 선봉에는 중장기병을, 중장기병 뒤에는 창병을, 좌우측에는 경기병을 배치했을 것이다.

전투가 개시되자 광개토왕이 보병대의 지원을 받으며, 중장기병을 지휘하여 백제군 중앙의 방진을 향해 돌격하였다. 방진을 친 백제의 선봉대가 고구려 중장기병의 돌파에 간격을 허용하자, 이를 확인한 광개토왕은 백제군 전열의 중앙으로 돌진했을 것이다. 중앙 대열이 무너진 백제군은 좌우 측면에 배치한 경기병이 고구려 보병대를 향해 활을 쏘면서 돌진했지만, 고구려 중장기병<sup>36)</sup>의 돌파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붕괴된 듯하다. 백제군은 결국 고구려군의 중장기병을 방어하지 못해 패배했다고 하겠다.

高句麗王談德 親帥兵七千 陣於溟水之上拒戰 我軍大敗 死者八千人”

35) 『三國史記』 권25, 백제본기 3, 아신왕 4년 겨울 11월 “冬十一月 王欲報溟水之役 親帥兵七千人過溟水 次於 靑木嶺下 會大雪 士卒多凍死 迴軍至溟山城 勞軍士”

36) 광개토왕의 강력한 군사력의 원인을 중장기병에서 찾는 연구가 있다. 이인철, 「4~5세기 고구려의 남진경영과 중장기병」, 『군사』 제33호, 국방군사연구소, 1996; 정동민, 「고구려 重裝騎兵의 모습과 도입시점에 대한 소고」, 『전통문화연구』 제6호, 용인대, 2007; 정동민, 「고구려 重裝騎兵의 특징과 운용형태의 변화-고분벽화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제52호, 한국고대사학회, 2008.

394년 8월 백제는 수곡성 전투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고구려를 침공했다. 광개토왕은 백제군을 깊고 빠른 물살과 독이 가파른 강에서 격퇴하기 위해 패수<sup>37)</sup> 가에 진을 쳤다. 광개토왕은 선봉에 중장기병을 배치하고<sup>38)</sup>, 중장기병의 뒤에는 창병과 방패병 및 쇠뇌병을 배치하였다.<sup>39)</sup> 백제는 선봉에 방패병과 창병으로 방진을 쳐서 고구려 중장기병에 맞섰지만,<sup>40)</sup> 원거리에서 쏘는 고구려 쇠뇌를 막지 못하고, 백제의 방진이 무너진 듯하다. 백제군은 도망갈 수가 없었으며, 처절한 학살이 뒤따랐다.

한편 아신왕은 같은 해 겨울에 패수에서의 패배를 보복하기 위해 친히 군사 7천을 이끌고 한수를 건너 청목령 벌판에 진을 쳤다. 그때 마침 큰 눈이 내려 회군할 수밖에 없었다. 아신왕은 399년(동왕 8)에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와 말을 대대적으로 징발하였다. 이에 병역을 고통스럽게 여긴 백성들이 신라로 도망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

#### 4. 고구려의 한강하구 진출과 기마전

아신왕이 죽고, 진지왕이 16년, 구이신왕이 7년을 재위하였다. 이 기간에는 전쟁이 없었는데, 427년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백제를 압박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는 북위와의 대립관계가 고조되어 적극적으로 남진 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다. 양국 간의 본격적인 전쟁은 450년에 일어났다.

37) 패수는 예성강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평산군 저탄의 나무터를 지칭한다. 주 17 참조.

38) 중장기병은 기동력보다는 철갑으로 무장한 중장갑기사가 전투를 수행했다. 특히 중장기병은 등자를 사용하면서 타격력과 방어력이 획기적으로 증진했는데, 광개토왕이 중장기병을 주력군으로 편제한 것은 그동안 보병 중심의 전술이 기병 중심으로 전환되었음을 뜻한다. 한편 중장기병의 등장은 치명성이 큰 무기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9) 중장기병의 뒤에 무장한 보병을 배치한 것은 중장기병의 공격으로 전투대열이 붕괴된 상황에서 보병이 즉시 2차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적진을 괴멸시키려는 전술이다.

40) 기병대를 방어하는 유일한 전술은 보병으로 방진을 치고 대항하는 것이었다.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자, 신라의 눌지왕이 백제에게 구원군을 파견하였다.<sup>41)</sup> 양국은 433년에 나제동맹을 맺어 상대국이 침입을 받으면 군사를 파견한다는 약속을 실행한 것이다.

백제와 고구려 양국은 대립관계가 조성되었지만 전쟁은 없었다. 그런데 468년 고구려가 말갈 병력 1만 명을 동원하여 신라 북쪽 변경의 실직성을 공격하면서 양국은 갈등관계에 돌입했다. 다음의 사료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

- ① 개로왕 15년 가을 8월, 왕이 장수를 보내어 고구려 남변을 침공하였다.<sup>42)</sup>
- ② 개로왕 겨울 10월, 쌍현성을 수리하고, 청목령에 큰 목책을 설치하고, 북한산성에 있는 군사를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sup>43)</sup>

위 사료 ①은 469년에 백제의 개로왕이 군대를 보내 고구려 남쪽 변경을 침공했다는 내용이고, 사료 ②는 같은 해 10월 개로왕이 쌍현성(장단군)을 쌓고, 청목령(개성)에 목책을 설치하였으며, 북한산성의 병력을 분산 배치했다는 내용이다.

사료 ①에서 말한 고구려의 남쪽 변경은 광개토왕이 정복한 58성과 700촌의 영역이다. 그런데 당시 광개토왕은 한강을 백제에게 돌려주고 임진강 이북지역만 영유했기<sup>44)</sup> 때문에 광개토왕이 차지한 고구려의 실제 영토는 관미성과 통진, 인천 등의 강화만하구로부터 임진강 이북지역에 한정된다. 광개토왕은 서해안에 상륙한 후 한강 연변을 따라 한성을 포위했으므로 한강 이북지역을 장악한 것은 아니었다.<sup>45)</sup>

그러므로 예성강과 임진강 사이의 영역은 양국 모두에게 여전히 분쟁

41) 『三國史記』 권3, 신라본기 3, 눌지왕 39년.

42) 『三國史記』 권25, 백제본기 3, 개로왕 15년(469) 8월 “十五年秋八月 遣將侵高句麗南鄙”

43) 『三國史記』 권25, 백제본기 3, 개로왕 15년(469) 10월 “冬十月 葺雙峴城 設大柵於青木嶺 分北漢山城士卒戍之”

44) 이병도, 「위례고」,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382쪽.

45) 문안식, 앞의 글, 2006, 23쪽.

지역이었다. 따라서 백제는 쌍현성을 증축하고, 청목령(개성)에 목책을 설치하여 고구려 기병의 남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한편 고구려 장수왕은 한성을 공격하면서 군대를 여러 방향으로 상륙시켰는데, 주력부대는 대동강 유역에서 발진하여 강화만하구를 거쳐 한강하류를 거슬러 한성으로 직행하였다.

개로왕은 고구려가 동맹국 신라를 공격한 것을 계기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였다. 쌍현성을 수리하고 청목령에 목책을 설치한 것은 당시 백제가 임진강 북쪽의 개성과 장단, 삭녕, 안협, 이천까지 확보했음을 시사한다.<sup>46)</sup> 개로왕은 국력을 결집하여 고구려에 대응했지만, 대내적으로는 전제왕권이 약화되고, 대외적으로는 친북위정책에 실패함으로써 고구려의 침공을 자초하였다.

고구려군은 예성강 수로를 이용해 한성을 침공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개로왕이 일찍부터 개성과 장단 부근에 성을 쌓고, 고구려 기병을 차단할 목적으로 목책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고구려군은 신계에서 금천으로 내려와 삭녕을 거쳐 호로하(연천군 장단면) 부근의 여울을 건넌 것으로 추정된다. 호로하 부근은 강물이 얇아 고구려 기병대가 쉽게 도강할 수 있었다. 도강 이후의 진로는 동두천, 양주, 의정부, 서울의 코스와 철원, 포천, 남양주를 우회하는 방법을 추정할 수 있다.

장수왕은 475년(동왕 58) 병력 3만을 직접 이끌고 백제를 침공하여 개로왕을 죽이고 한성을 함락하였다. 다음의 사료를 통해 당시 양국의 기마전을 알 수가 있다.

21년(475) 가을 9월, 고구려 왕 거련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한성을 포위하니 왕이 피살 당했다. (중략) 왕은 성문을 굳게 닫고 나가 싸우지 않았다. 고구려왕이 군사를 네 길로 나누어 공격하니 장군 대로, 제우, 증결루, 고이만년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 북쪽 성을 공격하여 7일 만에 빼앗고 이동하여 남쪽 성을 공격하여 성문에 불을 놓으니, 왕이 어찌할 바를 몰라 수

46) 문안식, 앞의 글, 2006, 29쪽.

십 기를 거느리고 성문을 빠져나와 서쪽으로 도망쳤다.<sup>47)</sup>

위 사료는 고구려가 3만의 병력으로 성을 포위하자, 한성의 방어군이 성문을 열고 수성전을 전개했는데, 고구려군이 성문을 태우고 성을 함락했다는 내용이다.

한성의 고구려 정벌군은 3만의 군대의 네 개부대로 나누어 동서남북의 각 문에 배치하였다. 이때 보병은 석포를 쏘고, 성벽을 올랐다. 그리고 기병은 방어군이 성 위에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화전을 쏘았다. 한편 기병이 성벽을 향해 쏘는 불화살은 성벽을 오르는 군사의 안전을 보장했다. 그리고 고구려 정벌군은 기동력이 뛰어난 경기병을 한성으로 통하는 교통로를 차단하여 외부 구원군과의 연락을 끊었다. 고구려 정벌군은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날을 택해 성문에 방화를 했다. 그리고 정벌군은 불에 탄 성문을 열고 성 안으로 돌진하였다. 성은 곧 함락되었다. 한편 고구려군은 신라의 1만 구원군이 한성으로 출발하였고, 백제의 지방군이 연합할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한강의 북쪽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백제는 문주왕 원년(475)에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는데,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 한강유역 일대는 고구려 영역이 되었다. 그러나 백제의 동성왕이 482년 한성을 장악함으로써 고구려가 한성에 주둔한 것은 7년에 불과했다.<sup>48)</sup> 특히 495년 고구려가 치양성을 포위하자, 백제가 신라에 구원병을 요청하여 고구려를 물리쳤다.<sup>49)</sup> 신라가 무령왕이 한성 일대 수복을 적극 실현함으로써 양국은 신계지역에서 교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의 사료를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47) 『三國史記』 권25, 백제본기 3, 개로왕, 21년(475) 추 9월 “二十一年秋九月麗王 巨璽帥兵三萬來圍漢城 王被害薨 王閉城門不能出戰 高句麗人分兵爲四道夾攻 其將對盧齊于, 再曾桀婁, 古余萬年 等攻北城 七日而拔之 移攻南城 縱火焚燒城門 王窘不知所圖 領數十騎出門西走”

48) 최종택, 「몽촌토성 내 고구려 유적 재고」, 『한국사학보』 제12호, 고려사학회, 2002.

49) 『三國史記』 권26, 백제본기 4, 동성왕 17년(495) 8월.

- ① 무령왕 1년(501) 겨울 11월, 달솔 우영을 보내어 군사 5천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水谷城을 습격하였다.<sup>50)</sup>
- ② 문자왕 16년(507) 겨울 10월, 왕이 장군 고노를 보내어 말갈과 함께 모의하고 백제의 한성을 치려고 횡악 아래 주둔하니, 백제가 군사를 내어 기습하여 싸우므로 드디어 후퇴하였다.<sup>51)</sup>
- ③ 무령왕 12년 가을 9월, 고구려가 가불성을 습격하여 빼앗고, 군사를 이동하여 원산성을 깨뜨리고 약탈과 살상이 매우 많으므로 왕은 날랜 기병 3천을 거느리고 위천의 북쪽에서 싸울 때 고구려 사람들이 왕의 군사가 적음을 보고 쉽게 여겨 진도 만들지 않으니 왕은 췌병을 내어 급히 쳐 크게 이겼다.<sup>52)</sup>

위 사료 ①은 503년 백제가 군사 5천명을 이끌고 고구려 수곡성(황해도 신계)을 기습했다는 내용이고, 사료 ②는 507년 고구려가 한성을 치기 위해 횡악(북악산)에 진을 쳤지만, 백제의 기습공격을 받고 패했다는 내용이며, 사료 ③은 512년 고구려가 가불성과 원산성을 함락한 상황에서, 백제가 기병 3천을 이끌고 고구려 대군을 기습하여 승리했다는 내용이다.

사료 ①의 수곡성은 황해도 신계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도 양국은 신계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공방전을 계속하였다.<sup>53)</sup> 이러한 사실은 백제의 웅진 천도 이후에도 예성강 이남에서 한강 이북지역이 여전히 분쟁지역이었음을 뜻한다.

수곡성에서 교전한 6년 후 고구려는 백제의 북쪽 방어시설을 무력화

50) 『三國史記』 권26, 백제본기 4, 무령왕 1년(501) 1월 “冬十一月 遣達率優永 帥兵五千襲高勾麗水谷城”

51) 『三國史記』 권19, 고구려본기 7, 문자왕 16년(507) “十二年冬十一月百濟遣達率 優永 率兵五千來侵水谷城”

52) 『三國史記』 권26, 백제본기 4, 무령왕 12년(512) 9월 “秋九月 高勾麗襲取加弗城 移兵破圓山城 殺掠甚衆 王帥勇騎三千 戰於葦川之北 麗人見王軍少 易之 不設陣 王出奇急擊大破之”

53) 수곡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황해도 신계지역으로 보는 견해(양기석, 「백제 전제왕권 성립 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와 한성시대의 지명을 일치했다는 견해(이도학, 「백제 집권국가 형성과정 연구」,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가 대립한다. 여기서는 양기석의 견해에 따랐다.

시키면서 한성에 가까운 북한산 북쪽 15리 횡악까지 진출했다. 고구려군이 진을 치고 경계 태세에 돌입한 상황에서 백제군이 기습공격을 감행해 고구려군을 격퇴했다. 당시 백제의 주력군은 기병이고, 기병의 장점이 기동력을 감안할 때 백제 기병의 우수성을 시사한다.

횡악 전투에서 패배한 5년 후 고구려는 대군을 이끌고 가불성성과 원산성을 함락시킨 다음, 1천명의 포로를 이끌고 철군 중이었다. 이때 백제의 무령왕이 3천의 정예기병을 이끌고 고구려군의 퇴로를 정면에서 막았다. 그러면 당시 고구려군의 전체 병력 수는 얼마정도였을까? 일반적으로 평탄한 지면에서는 전체 군 병력의 6분의 1을 기병으로 구성하고, 산악지방에서는 10분의 1정도로 구성했다. 따라서 백제의 3천 기병은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본다면, 고구려군의 전체 숫자는 3만 명이상이었을 것이다. 고구려군이 백제 기병을 앞잡아 본 것은 기병의 수가 열세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병의 지원이 없는 기병만의 단독 공격은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구려군이 진을 치지 않았던 소이가 여기에 있다.

만약 고구려군이 백제 기병을 상대로 진을 쳤다면, 선봉에는 창으로 무장한 보병으로 방진을 구축하고, 방진의 후면에는 방패와 쇠뇌로 무장한 보병을, 좌우 측면에는 기병을 배치했을 것이다. 여기서 고구려군이 진을 치지 않았다는 것은 고구려군의 보병 대형이 무너진 상황을 지칭한다.

사료 ③에서 무령왕이 “기발한 작전으로 기습했다”는 것은 기병의 가치인 신속성과 기동성 및 격렬성을 모두 발휘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백제의 정예 기병은 대열이 무너진 고구려 보병이 공세적인 반격을 취하기 전에 신속히 공격을 감행했다. 근접전투에서 백제 기병의 무기는 창보다 기병도가 위력을 발휘했을 것이다.

한편 고구려 보병 대열이 무너진 상태에서 백제의 창기병과 갑기병이 격렬한 질주 공격을 감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창은 기병대가 횡대로 공격할 때 경기병을 위한 최선의 무기이고, 동체 갑옷은 기병도를 사용하는 중장기병을 위한 무기였다. 이때 창은 기병이 적에게 멀리 떨어져 공격하는

무기인 반면, 기병도는 대열이 무너진 근접전투에서 창보다 더 손쉽게 다루었다. 따라서 당시 고구려 대군을 물리친 백제의 기병은 파괴력을 가지고 적진으로 돌파한 중장기병이었다.

백제 무령왕은 위천 전투에서 고구려 대군을 물리침으로써 영토를 패수(예성강)까지 확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백제가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도 한수 이북의 영토를 확보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성왕대에도 한강 하류의 영유권을 확보하려고 양국은 치열한 기마전을 전개했다. 다음의 사료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 ① 성왕 원년(523) 가을 8월, 고구려 군사가 패수에 이르니, 왕은 좌장 지충을 시켜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싸워 물리쳤다.<sup>54)</sup>
- ② 성왕 7년(529) 겨울 10월, 고구려왕 흥안(안장왕)이 직접 군사를 통솔하고 와 침략하여 북변의 혈성을 빼앗으므로 좌평 연모를 시켜 보·기병 3만을 거느리고 五谷의 벌판에서 항전케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죽은 자만 2천여 명이였다.<sup>55)</sup>
- ③ 성왕 26년(548) 봄 정월, 고구려왕(양원왕) 평성이 濊와 함께 모의하고 한수 이북의 독산성을 공격하므로 사신을 신라에 보내어 구원을 청하니 신라왕이 장군 주진을 시켜 갑병 3천을 거느리고 가게 하였다. 주진은 밤낮으로 행군하여 독산성 아래 당도하여 고구려 군사와 한번 싸움으로써 크게 격파했다.<sup>56)</sup>

앞의 사료 ①은 백제가 보·기1만으로 패수(예성강)에서 고구려군을 물리쳤다는 내용이고, 사료 ②는 백제군 보·기3만이 오곡 벌판에서 고구려군과 기마전을 전개했지만 패배했다는 내용이며, 사료 ③은 한수 이북 백제

54) 『三國史記』 권26, 백제본기 4, 성왕 1년(523) 8월 “秋八月 高句麗兵至溟水 王命左將志忠 帥步騎一萬 出戰退之”

55) 『三國史記』 권26, 백제본기 4, 성왕 7년(529) 10월 “七年冬十月 高句麗王興安躬帥兵馬來侵 拔北鄙穴城 命佐平燕謨 領步騎三萬 拒戰於五谷之原 不克 死者二千餘人”

56) 『三國史記』 백제본기 4, 성왕 26년(548) 1월 “二十六年春正月 高句麗王平成與濊謀 攻濊北獨山城 王遣使請救於新羅 新羅王命將軍朱珍領甲卒三千發之 朱珍日夜兼程 至獨山城下 與高句麗兵一戰 大破之”

의 독산성 아래에서 신라의 갑병 3천이 고구려군과 기마전을 전개하여 승리했다는 내용이다.

사료 ①의 패수는 현재의 예성강을 말하는데 패하라고도 한다. 앞에서 패하는 평산군 저탄으로 해석하였다. 당시 패수에서 전개된 양국의 기마전은 자료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전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1만의 보·기병을 패수까지 신속하게 이동시켜 교전한 사실은 백제가 경기병의 기동력으로 승리했음을 시사한다.

한편 7년 후 백제는 3만의 보·기병을 이끌고 북쪽 국경선 부근의 오곡성(황해도 서흥) 벌판에서 고구려군과 기마전을 전개했지만 패배하였다. 당시 양국은 오곡성 앞 평지에 진을 치고 정규전으로 교전하였다. 일반적으로 정규전에서 선봉에는 보병방진과 중장기병을 배치하고, 방진 후방에는 원거리 무기병인 쇠뇌병을 배치하며, 좌우측면에는 경기병을 배치하였다.

기병의 기습 공격이 아닌, 양국의 군대가 대치한 상황에서 평지기마전의 관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어느 쪽이 먼저 적국의 보병방진을 격파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어느 시점에 측면의 경기병을 출진시켜 무너진 보병대열을 공격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따라서 백제군은 고구려 중장기병의 공격에 보병방진이 일찍 무너짐으로써 고구려 경기병의 측면공격을 막지 못해 패배했다고 하겠다.

양국의 기마전은 19년 후인 548년(성왕 26) 백제의 독산성에서 신라의 3천 갑병과 고구려 기병이 교전하였다. 여기서 신라의 갑병은 중장기병을 말한다. 고구려와 백제 양국의 군대는 독산성 아래에서 진을 치고 대치하였다. 각 국의 선봉에는 긴 창으로 무장한 보병이 방진을 쳤고, 진의 중앙에는 원거리 무기인 쇠뇌로 무장한 중장기병을 배치하였다. 그런데 당시 전쟁의 승패는 중장기병의 운용에서 결정되었다.

중장기병은 병사와 말이 모두 갑옷으로 무장하여 자체 방어가 가능했다.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공격무기와 부대 배치에 따라 달랐다. 다시 말해서 중앙에 기병대를 종대로 배치할 것인가 아니면 횡대로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공격 종대는 공격의 연속성이 장점이지만, 독립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반면에 기병대를 완전횡대로 배치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배열된 부대는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만약 제1의 횡대가 갑자기 무너지고, 제2의 대열도 똑같이 무너진다면, 공격할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구원군으로 참여한 신라의 갑병이 고구려군을 격퇴한 것은 기병의 배치와 공간 확보 및 사용한 무기가 우수했기 때문이었다.

## 5. 맺음말

4~5세기 고구려의 남방진출과 기마전의 문제를 강화만하구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러한 결과 기병이 우세한 국가가 강화만하구를 장악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고구려의 예성강하구 진출과 기마전, 관미성 함락과 기마전, 한강하구 진출과 기마전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구려의 예성강하구 진출과 기마전에 대한 문제이다. 임진강과 한강이 합해 한강하구를 이루고, 한강하구는 또다시 예성강하구와 합해서 강화만하구를 이룬다. 고이왕은 대방군의 속현인 진한 8국을 차지하면서 강화만하구에 대한 지배권은 백제가 선점하였다. 그러나 고구려 미천왕이 313년 낙랑군을 축출하면서 양국은 국경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전쟁을 피할 수 없었다.

369년 고국원왕은 2만의 보·기병을 이끌고 백제 치양(배천군)에 진을 쳤다. 백제의 근구수 태자는 기병을 이끌고 셋길로 치양에 도착하여 맞은편 반걸양(배천군)에 진을 쳤다. 전체 병력 숫자는 백제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고구려군 중 붉은 깃발의 부대만 정병이고, 나머지는 비정규군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근구수 태자는 경기병으로 붉은 깃발의 부대를 기습하여 격파했다. 이때 백제는 예성강상류 신계지방의 수곡성을

확보했다. 그런데, 이곳은 고구려를 공격하거나 방어할 때 중요한 요충지다. 371년 양국은 패하에서 또다시 교전하였다. 백제는 기병의 기습공격으로 승리했다. 이때 백제는 예성강 하류지역을 차지하여 서쪽 경계를 웅진 반도와 해주까지 확대하였다. 같은 해 겨울 근초고왕은 태자와 함께 평양성(대동강)을 공격하여 승리하였다. 백제가 세 번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백제의 기병전술이 고구려보다 우세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고구려의 관미성 함락과 기마전에 대해 고찰하였다. 광개토왕은 백제와 다섯 차례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였다. 광개토왕은 391년(동왕 1) 4만의 대군을 이끌고 예성강 상류 신계지방을 공략하여 10여 개 성을 빼앗는 전과를 올렸다. 같은 해 10월에는 강화만 하구의 관미성을 함락시켰다. 당시 고구려는 뗏목을 이용한 임시교량(부표)을 만들어 중장기병을 도강시켰을 것이다. 도강한 중장기병의 7개 부대가 20일 만에 관미성을 함락시켰다. 한편 고구려의 경기병은 백제 방어군의 군량 수송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가 관미성을 함락시킨 것은 광개토왕의 중장기병의 육성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한편 백제의 아신왕은 관미성 수복에 국운을 걸었지만 실패하였다. 이에 관미성과 석현성 등 예성강하구 요충지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고 마식령산맥을 넘어 수곡성의 신계로 진출하였다. 만약 백제군이 신계의 수곡성을 장악하여 예성강 상류 지역을 확보한다면, 그 하류 지역의 남안에 주둔한 고구려군을 남북의 두 방향에서 협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신왕의 계획은 전략전술이 뛰어난 광개토왕에 의해 무너졌다.

393년 아신왕은 수곡성 앞에 진을 쳤다. 광개토왕은 5천의 기병을 이끌고 대치했다. 광개토왕은 선봉에 중장기병을 배치하고, 창병을 중장기병의 후방에, 경기병을 좌우측면에 배치하였다. 백제군은 선봉에 방패군을 배치하여 고구려 중장기병에 맞섰지만, 그 충격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열이 붕괴되었다. 이때 고구려 중장기병이 백제군의 중앙 대열을 돌파함으로써 패배하였다. 아신왕은 수곡성의 패배를 보복하기 위해 이듬해 8월 패수에서 고구려와 교전하였다. 광개토왕은 7천의 기병을 이끌고 진을 쳤다. 선봉에는

중장기병을, 기병의 후방에는 창병과 쇠뇌병을 배치하였다. 백제는 선봉에 방패병으로 방진을 만들어 고구려 중장기병에 맞섰지만, 위력이 강한 쇠뇌를 맞고 방진이 무너졌다.

마지막으로 고구려의 한강하구 진출과 기마전에 대해 고찰하였다. 장수왕은 남진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475년에 왕은 3만의 병력을 직접 이끌고 한성을 네 개 부대로 포위하였다. 화공으로 북문을 태우고 진입하여 개로왕을 살해하고 한성을 함락했다. 장수왕은 한수 이북에 주둔한 백제군과의 교전을 피하면서 평양으로 철군하였다. 이때 기병이 후방에서 부대를 엄호하였다.

(원고투고일 : 2012. 9. 28, 심사수정일 : 2012. 11. 21, 게재확정일 : 2012. 11. 30)

주제어 : 강화만하구, 기마전, 고국원왕, 근초고왕, 광개토왕, 중장기병의 육성, 관미성, 신계의 수곡성, 방패군, 경기병

<ABSTRACT>

Goguryeo's Occupation of the South and Cavalry Battles  
- Focusing on the Occupation of the Mouth of Ganghwa Bay -

Yi, Hong-du

The Imjin River and the Han River merges at the estuary of the Han River, which in turn merges with the mouth of the Yeseong River to form the Ganghwa Bay. King Goi subjugated the 8 nations of Jinhan, a subject province of Daebang Gun, and hence preoccupied and controled the mouth of Ganghwa Bay. When King Micheon drove out Nakrang Gun in A.D. 313, the two nations, Goguryeo and Baekje, were shared border and the war was inevitable.

In 369, King Gogukwon invaded Chiyang (Baecheon gun) in Baekje with 20 thousand infantry and cavalry troops. The Crown Prince Geungusu led his cavalry through a byway to arrive at Chiyang, and pitched camp on Bangeolyang (Baecheon gun) opposite Chiyang. He ambushed his soldiers, and launched a surprise attack on the elite troops of the red flag by means of cavalry. Winning the war, Baekje secured Fort Sugok in Singye Province at the upper River of Yeseong. In 371, the two nations were again engaged at Paeha. Baekje won the war by a surprise attack with its cavalry, and hence extended its west boundary to the Ungjin Peninsula and Haeju. In the winter of the same year, King Geunchogo with his Crown Prince attacked Pyeongyang Fort (the Daedong River) and won. The reason why Baekje won all three battles was that it had excellent cavalry tactics with mobility.

King Gwanggaeto won all five wars with Baekje. The victories were based on the building a heavily armed and equipped corps. In October 391, King Gwanggaeto took Gwanmi Fort at the mouth of Ganghwa Bay by an amphibious operation. At that time, Goguryeo's cavalry blocked the logistics

line in the near of Baekje's naval forces. With the fall of Gwanmi Fort, Baekje lost the maritime outpost. On the other hand, King Asin was defeated without overcoming King Gwanggaeto's cavalry troops though he staked the fate of his nation on the reclamation of Gwanmi Fort. Then, he abstained from the attack on the mouth of Ganghwa Bay, but advanced into Sugok Fort in Singye. In 393, King Asin pitched camp in front of Sugok Fort. King Gwanggaeto manned 5 thousand cavalymen in the van and on the left and right sides, and he put spear and shield soldiers at the back of the heavily armed and equipped corps. Baekje stood against Goguryeo by disposing shield solders in the van. However, when the central file collapsed, they couldn't help but withdrawing. In July 394, King Asin tried a pay off at the Paesu. As King Gwanggaeto attacked with 7 thousand cavalymen, Baekje army ran away. King Gawnggaeto turned light cavalry troops to the rear area to attack the Baekje army and inflicted 8 thousand casualties.

King Jangsu aggressively drove the policy of advancing southward. In 475, the king led 30 thousand soldiers on his own to siege Hanseong with four units. He burnt the northern gate by fire attack, entered and took Hanseong with King Gaero killed. He came back to Pyeongyang evading battles with Baekje corps staying north of the Han River. Then, the cavalry protected the king's army in the near.

Key Words : The mouth of Ganghwa Bay, Cavalry Battles, King Gogukwon, King Geunchogo, King Gwanggaeto, the building of heavily armed, Gwanmi Fort, Sugok Fort in Singye, shield soldiers, light cavalry troops.